

■ 법률 칼럼

# 이민 잠정중단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1. 미국 내에서의 이민 수속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내의 영주권 수속 중단은 없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셔서 이민비자로 입국하는 케이스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종전과 같은 규정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신 경우 미국 내에서 종전과 같이 시민권자의 이민청원서 (I-130)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에 접수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 대면 접촉 서비스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인터뷰가 늦게 잡힐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례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미국 밖에서도 수속을 해서 영주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인터뷰가 서울의 미대사관 영사과에 행정명령 서명 이후인 2020년 4월29일에 잡혔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속에 중단이 없습니다.

2. 모든 비이민과 관련된 신분 변경 및 연장에는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유지 중인 비이민 신분(F-1, E-2, H-1B, R-1, J-1)에서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하시거나 또는 현재 유지 중인 비이민 신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생 신분, 종교비자, 취업비자, E-2 신분 등으로 신분 변경을 하실 분들은 미국 내에서 문제 없이 신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4월 초 부터 행정명령 서명 이후 지금까지 저희 사무실에서는 학생 신분 변경, E-2 신분 변경 및 연장 등이 계속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내에서의 비이민 신분 수속에 중단이 없습니다.

3. 취업이민에 대하여

작년 말에 3순위에 대한 Cutoff date가 생기면서 대기 기간이 많이 길어진 관계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 희망적인 것은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청과의 업무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정임금 수준 결정도 나오고 있으며, 폼 LC도 계속 승인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취업 이민청원서 및 영주권 신청 절차는 문제 없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컷오프 데이트는 케이스 적체 해소 여부에 따라 날짜가 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수속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청인이 줄어들고 있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수속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마저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 4. 이민소식

- 1) 5월에도 지난 4월에 이어 영주권자 배우자와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의 청원서 영주권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 취업비자, E-2, 종교비자 청원 및 취업영주권 청원서에 적용되던 급행 서비스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계속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 3) 대면 접촉 서비스 중단에 따라 DACA, 노동 허가증 신청, 영주권 갱신, 영주권 조건부 해제 시에 요구되던 지문 채취가 어려워 졌고 최근 위 케이스의 경우 지문 채취 없이 전에 받았던 지문으로 신원조회를 하고 케이스를 승인해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4) DACA 갱신 처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케이스들이 2달 안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5)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 없이도 영주권이 승인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지난 주말에 영주권 인터뷰 없이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으신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 6) 시민권/영주권 인터뷰, 시민권 선서식, 지문 채취, 인포패스 같은 대면 서비스 재개가 6월4일로 미루어졌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 대부분의 질병은 구강 세균과 연관되어 있다

구강 세균 즉, 잇몸 세균은 치과 질환 뿐만 아니라 성인병과 전신질환을 일으킨다. 당뇨, 심장병, 뇌졸중, 치매 등을 일으키며 특히 여성과 임산부에게는 유산이나 저체중아와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표어 '8020', 80세까지 20개 이상 치아를 가지면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크다. 치아를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 치아 상실의 원인, 잇몸병...구강 세균이 왜 위험한가?

구강 내에는 보통 5백만 마리 세균이 있다. 신체의 면역기능이 정상적이고 염증이 없으면 이런 세균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석과 치태에 존재하는 병균이 번성하면 염증이 발생되며, 이때부터 세균들이 신체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다.

세균과 염증 과정 중 나오는 독소가 먼저 치아 주위 조직인 치조골과 잇몸을 공격하면 피가 나고, 붓고 아프다. 세균과 독소는 입안의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일종의 '패혈증' 상태로 온몸의 세포와 장기를 공격하여 각종 성인병과 전신질환을 일으킨다.

특히 당뇨, 심장병, 뇌졸중, 치매 등 대표적인 만성질환을 일으킨다. 지속해서 구강 세균과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세균과 독소는 온몸의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빠르게 악화시킨다. 이는 구강 세균과 독소가 일종의 고속도로인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셈이다. 세균이 혈관을 타고 돌면 패혈증이라고 하는데, 노인들은 임종 시 대부분 패혈증으로 사망한다.

잇몸 세균이 심장 판막에 붙으면 심장 판막염을 일으키며, 임산부의 태반에 달라붙으면 조기 출산, 저체중아를 일으킨다. 뇌의 혈관과 세포에 달라붙어서 뇌졸중과 치매를 유발한다. 췌장 세포에 붙으면 당뇨병 발병률을 두 배 증가시키고, 당뇨 합병증을 더욱 악화시킨다. 구강 세균이 현대인의 성인병에 모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혹시, 당뇨, 심장병, 뇌졸중 등의 만성 전신질환 환자에게 아무리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가 잘 낫지 않는다면, 환자의 구강 세균 때문인지 확인해야 한다. 구강 세균이 혈관을 타고 돌지 못하게 세균의 운상인 입안을 우선 치료해야 한다. 즉, 잇몸병과 충치 등 심한 염증이 있다면 다른 과의 치료와 함께 치료하면서 잇몸 세균을 없애야 한다.

### ■ 구강 세균을 억제하는 방법은 ?

첫째, 구강 세균을 없애기 위하여 입안을 깨끗이 닦는다.

올바른 칫솔 방법으로 이를 닦고, 치실, 치간 칫솔 등의 보조기구도 같이 사용하면 좋다. 잇몸병이 심하거나, 임플란트나 치열 교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구강 세정기(water jet)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꾸준한 치료와 정기적 검진이다. 잇몸에 피가 나고, 붓고, 농이 차서 아플 경우, 한두 번 치료해서 증상만을 완화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잇몸병은 중단하기 말고 계속 치료하여 염증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 중증의 잇몸병은 절대로 한두 번 치료로 나올 수 없다.

치료 후 어느 정도 잇몸의 염증이 조절된 이후에는 정기적 점검을 해야 한다. 잇몸이 건강한 경우는 6개월마다 점검하지만 심한 잇몸병이라면 2-3개월마다 점검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구강위생을 잘해도 계속 쌓이는 치태와 치석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치과 치료를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치과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100세를 꿈꾸어 보자. 생활 습관을 바꾸면 100세 행복이 보인다.

Micheal Han D.D.S  
Harbor Implant & Cosmetic Dentistry  
TEL (714) 773-9999  
gotearnhcd@gmail.com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 전문

# Pine Tree Construction

## 부엌 / 화장실 리모델링 전문

전기/플러머/타일 25년 이상 풍부한 경험!!!  
최고의 기술력 & 정직한 회사

714.345.8768 36 Discovery #100  
Irvine, CA 92820

주정부 면허회사  
CA Lic #:1051205

